

韓國 現代小說의 方向

全 光 鏞*

1

時代的 概念을 지닌 小說樣式의 分類에 있어서 20世紀의 韓國小說은 일반 적으로 現代小說이라고 指稱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論者에 따라서는 이 시기의 小說을 意識적인 區分을 지어 近代小說과 現代小說로 나누어 논하는 事例도 없지 않다.¹⁾ 近代나 現代라는 개념은 우리 文學의 傳統意識의 흐름 속에서 抽出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用語 자체는 西歐思潮의 導入過程에서 固定화된 術語이며, 一般史에 準하여 文學史에서도 이 語彙가 그대로 援用된 경우에 속하는 것이다.

우리 文學史에 있어서 近代의 始發點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論議가 있다. 즉 18世紀 英·正祖의 實學에 據點을 둔 近代의 始發說이 그 하나이다.²⁾ 그런데 그 思想性的의 淵源 자체에 대하여는 긍정이 가지만, 그것이 한 시대의 閃光的인 현상으로 後代로 계승 지속되지 못하였고, 또한 그 주동이 주로 兩班 支配層 學者에 머물렀을 뿐 市民階層의 토대 위에 선 大衆化로 연결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近代의인 싹을 보였다는 의의에 멈추고 마는 것 같다. 이와는 달리 傳統性的의 발전과정에 西歐思潮의 영향이 가미된 19世紀 後半 이후의 近代化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의 被動性은 부인할 수 없지만, 近代 資本主義의 積축과 自我 覺醒에 의한 일반 民衆의 參與를 얻어 지속적으로 발전 성장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좀더 本格的인 近代化의 始發

* 人文大 教授(國文學 專攻)

1) 李秉枝, 白鐵「國文學全史」新丘文化社 1957

2) 金允植, 김현「韓國文學史」民音社 1973

點으로 보려는 觀點은 많은 學者들의 呼應 내지 同調를 얻고 있는 것이다.³⁾ 韓國의 20世紀 小說은 이러한 時代的인 背景을 바탕으로 傳統的인 小說樣式과 西歐小說의 影響이 交叉되는 時點에서 發芽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教育制度의 실시, 基督教에 의한 聖經 讚頌歌의 普及, 新聞 雜誌 등 저널리즘의 發展, 文法의 體系化를 비롯한 語文研究 및 自國語에 대한 자각 등은 새로운 文學作品의 創作 및 광범위한 새로운 讀者層 확대에 직접 간접으로 촉진제의 구실을 했던 것이다.

2

開化期에 나온 新小說은 西歐小說의 影響을 받아 쓰여진 近代小說的인 試圖라 하겠다.

19世紀 末葉부터 20世紀 初에 걸쳐 나타난 새로운 文物 또는 現象에 대해서는 「新」자가 붙기 마련이어서, 新教育, 新學問, 新文學, 新女性 등이 그런 예에 속하며, 文學 藝術 樣式에 있어서도 新詩, 新演劇 그리고 新小說 등의 명칭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것은 당시의 時代的 흐름이 既成의 것, 傳來的인 것은 모두 낡은 「舊」에 속하고, 새로운 것 특히 西洋式 色彩를 띤 것은 모두 斬新하고 革新的이라는 新舊의 對立概念, 이룰대면 既存文化에 대한 拒否反應 및 새로운 것에 대한 驚異와 好奇가 결들인 時代的 狀況의 發露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新小說이라는 名稱이 나오게 되고,⁴⁾ 그것은 또한 半世紀餘의 時間이 흘러가는 사이에, 小說樣式에 있어서의 開化期小說을 表徵하는 명칭으

- | | | | |
|--------|----------|-------|------|
| 3) 韓治勳 | 「韓國通史」 | 乙酉文化社 | 1970 |
| 李基白 | 「韓國史新論」 | 一潮閣 | 1967 |
| 趙潤濟 | 「韓國文學史」 | 東國文化社 | 1963 |
| 金思燦 | 「改稿國文學史」 | 正音社 | 1954 |
| 李乘岐 白鐵 | 「國文學全史」 | 新丘文化社 | 1957 |
| 張德順 | 「韓國文學史」 | 同和文化社 | 1975 |

- 4) 金河明 「新小說과 血의 淚와 李人植」(文學「白民」改題 第22號) 1950
 全光鏞 「韓國小說發達史」(韓國文化史大系 5) 高大 民族文化研究所 1967
 李在統 「韓國開化期小說研究」一潮閣 1972

로 굳어져, 文學史的인 術語로 定着되었으므로, 「이야기책」으로 불려지던 古代小說과 西歐의인 小說의 體裁를 거의 갖추어 가는 現代小說과의 중간 단계에 놓이는 小說樣式으로 된 것이다.

新小說 作品은 순수한 創作物, 外國作品의 翻案物, 古代小說을 改作한 것⁵⁾ 등 數百種을 헤아릴 수 있으며, 그 作家 또한 有名 無名의 허다한 이름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한 創作이라고 推定되어 온 作品 속에도 전혀 翻案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지의 作者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版權 欄에 出版社가 著作 兼 發行者로 기록된 것이 있는가 하면, 作者인지 出版社主인지 未詳한 것이 있을 뿐더러, 개중에는 初版에는 실지의 作者 이름이 明記되어 있으나 再版 또는 他社가 새로 그 作品을 출판할 때는 出版社主가 임의로 著作者가 되어 있는 것도 있어, 그 정확한 判別에 적지 않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순수한 創作 작품으로 그 가치가 어느 水準에 달한다고 인정되는 作品은 그리 많지 않으며, 이에 따라 논의의 대상이 될 만한 作家도 그렇게 많은 수에 달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그 作品이 평가의 대상에 오르고 있는 作家로는 李人植을 비롯하여 李海潮, 崔瓊植, 安國善, 金教濟 등이며, 주로 翻案에 종사한 사람으로 具然學, 趙一齋, 李相協, 閔泰瓊 등을 들 수 있다.

李人植⁶⁾은 「血의 淚」를 비롯하여 「牧丹峰」(「血의 淚」의 下篇) 「鬼의 聲」 「雉岳山」(上卷) 「銀世界」등을 쓴 新小說의 代表的 作家이며, 李海潮는 「枯木花」 「自由鐘」 「花의 血」 등 20餘篇을 낸 가장 多作의 作家인 동시에 小說에 대한 斷片的 理論을 제시한 作家이기도 하다. 崔瓊植은 「秋月色」 「雁의 聲」 「春夢」 등 주로 愛情小說을 썼으며, 金教濟는 「雉岳山」(下卷)을 비롯하여 「顯微鏡」 「飛行船」등을 썼고, 安國善은 社會批判意識을 담은 寓話小說 「禽獸會議錄」과 短篇集 「共進會」(短篇 三篇 收錄)를 내놓았다.

新小說은, 대체로 開化期에 있어서의 啓蒙性을 띠고, 自主獨立, 新教育, 民衆啓發, 自由結婚, 階級打破 등 近代의인 意識을 다루려고 애쓴 흔적 및

5) 全光鏞 前掲書

6) 全光鏞 「李人植研究」(서울大學校論文集 人文社會科學 第六輯) 서울大學校 1957

言文一致의 文章에 접근하려는 시도 등을 보여 文學史的인 주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으나, 作家意識의 未確立, 作品에 대한 藝術性的 無自覺 등 미흡한 점이 적지 않아, 古代小說에서는 進一步하였다고는 하나 近代小說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지는 못했다.

3

1910年 韓日合邦으로 國權이 喪失되어 日本 植民地下에 놓이게 되자, 言論, 出版, 集會, 結社의 自由는 規制되고 우리말로 된 모든 新聞은 강제 폐간되어, 유일하게 남은 日刊紙는 總督府 機關紙로 바뀐 每日申報뿐이었다. 그리고 주로 文學 作品의 發表誌로서의 구실을 한 雜誌는 國內에서는 「少年」「青春」「泰西文藝新報」 등과 海外에서는 日本留學生들이 발간한 「學之光」등이 있었다.

이러한 與件속에서 1910年代에 활약한 作家는 春園 李光洙이다. 그는 習作이나 다름없는 초기의 小品 時期를 거쳐, 1917년부터 己未 이전까지에 肉親間的 異性愛를 그린 「少年의 悲哀」 同性戀愛를 다룬 「尹光浩」 自由結婚과 民族啓蒙을 부르짖은 「어린 벗에게」 등의 「短篇」 및 「無情」「開拓者」 등의 초기 長篇을 발표하였다.

「無情」은 民族意識과 三角愛情을 다룬 것으로, 여러 면에서 그의 代表作의 하나로 꼽히는 동시에, 韓國文學史 내지 小說史에도 하나의 問題作으로 擧論되어 오는 作品이며, 「開拓者」는 科學徒를 主人公으로 한 作品이나 後半의 내용이 愛情問題로 흐려져 一貫性を 잃고 있다.

春園은 己未 이후 1930年代까지에 「有情」「革命家の 아내」「그 女子의 一生」「흙」「사랑」 등의 長篇 및 歷史的 素材를 다룬 「李舜臣」「麻衣太子」「端宗哀史」「元曉大師」 그리고 短篇 「無明」 등 數十篇에 달하는 長短篇을 발표하였으며, 가장 多作의 作家로서 當代에 君臨한 代表的 作家이며, 가장 많은 讀者를 가진 作家이기도 하다.

그는 小說 외에 詩, 時調, 戲曲, 隨筆, 紀行文, 文學評論, 文化批評 등

文學의 各分野에 걸쳐 執筆하여 가장 폭넓은 作品活動을 하였으며, 民族主義와 人道主義에 입각한 啓蒙性을 作家意識의 主軸으로 하였다.

그의 作品에 대한 評價는 時間의 흐름에 따라 贊反 兩論이 거듭되어 오고 있는데, 특히 日帝治下에 있어서의 末年의 民族的 毀節은 그의 作品의 價値 評價에 적지않은 영향을 주고 있어, 作品만의 客觀的 評價와 作品에 作者의 行爲를 결부시키는 複合的인 評價와의 妥當性 與否가 논의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4

三一運動은 우리 文學史에 있어서 하나의 分界線을 이룬다.

學族的인 義學의 실패는 挫折과 失望을 안겨다 주었지만, 이에 따른 日帝의 懷柔策은 言論 出版에 대한 약간의 완화로 新聞 雜誌의 出刊이 허용되어, 朝鮮日報, 東亞日報, 中外日報(後의 朝鮮中央日報)등의 발행, 「創造」「廢墟」「白潮」「朝鮮文壇」등 文藝誌 및 「開闢」을 비롯한 많은 綜合誌의 발간은 침체되었던 문화면에 얼마간의 활기를 불어넣었고, 많은 文人들이 등장하여 피로소 文壇의 形成을 보게 되었다.

따라서 小說에 있어서도 有能한 小說家가 輩出되어 文學史的인 問題作이 속속 창작 발표되었다.

西歐文學에서 통용되는 近代文學의 개념을 우리의 文學史的 현실을 감안한 전제 위에서 準用한다면, 本格的인 近代小說의 정립은 金東仁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創造」창립 同人의 한 사람인 金東仁은 處女作 「弱한 者의 슬픔」을 비롯하여 「배따라기」「감자」「狂畫師」「狂炎 소나타」「발가락이 닳았다」「金妍實傳」등의 佳篇을 남겼다.

그는 小說의 文章에 유독히 관심을 가져, 三人稱 單數인 「그」의 의식적인 사용 제창, 文章 語尾의 時制 문제, 즉 「하노라」「하도다」등 時制의 막연한 표현을 지양하여 「한다」「하였다」「하겠다」등 過去, 現在, 未來의 確然한 時制에 의한 文章表現을 주장하고, 그것을 스스로 실천에 옮겼다. 그는

이와 같이 문장의 정확하고 참신한 표현과 아울러 현대적 감수성에 의한 작품의 심리적인 표현을 내세워 文學의 藝術性에 중점을 둔 작가이다. 그리고 文學評論 및 作家研究에도 힘을 기울여 「朝鮮近代小說考」 「春園研究」 등의 무게 있는 업적을 남기기도 했다.

金東仁과 더불어 초기 韓國 短篇小說의 定立에 기여한 作家로 玄鎭健과 康想涉을 들어야 한다.

玄鎭健은 「白潮」同人으로 「貧妻」 「술 勸하는 社會」 「墮落者」 등 초기 作品을 거쳐, 「운수 좋은 날」 「불」 「할머니의 죽음」 「B舍監과 러브레터」 등 짜임새 있는 短篇을 발표하였으며, 佛國寺 釋迦塔 建立을 素材로 한 歷史小說 「無影塔」을 남겼다. 그는 특히 文章 表現에 才氣가 있어, 이 시기에 있어서 가장 치밀하고 寫實的인 描寫를 하는 作家로 꼽혔다.

康想涉은 1920年代에 나온 作家 중에서 가장 많은 作品活動을 한 作家인 동시에, 文學史的인 比重이 가장 무겁게 다루어지고 있는 作家의 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첫 작품 「標本室의 靑개고리」를 비롯하여 「闇夜」 「除夜」 등 초기 作品에서부터 問題性을 제기했으며, 中篇 「萬歲前」 長篇 「三代」에 이르러서는 그 건실한 作家意識과 重厚한 文章表現으로 作家의 特色을 보였다. 특히 그의 해방 후의 作品인 「臨終」 「두 破産」 등의 短篇은 그의 圓熟한 경지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그가 출발점에서부터 내세워, 자신의 文學을 自然主義로 자처한 문학 사조적 주장은, 자연주의의 본질과 한국문학에 있어서의 자연주의 수용과정의 상관관계에서 究明되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를 남겨주고 있다.

金東仁과 함께 「創造」同人으로 나온 田榮澤은 「生命의 봄」 「惠善의 死」 「화수분」 등 基督教의인 人道主義에 바탕을 둔 作品을 썼고, 26歲로 夭折한 羅彬은 「물레방아」 「멍어리 三龍이」 등 학대받는 庶民의 哀歎을 그렸다.

崔鶴松은 자신의 體驗을 素材로 하여 生活의 慘狀을 浮刻시킨 「脫出記」 「故國」 등의 作品을 남겼다.

한편 1925年 朝鮮 푸르레타리아 藝術同盟(KAPF)이 결성된 시기를 전후하여, 無産階級을 素材로 한 作品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것을 文學史에서는

무로文學 및 新傾向派文學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左傾的인 思潮는, 外國에서의 그 경우와 달라, 우리의 현실에서는 日帝에 항거하는 反抗精神과 混淆되어 있으며, 抗日 統合體格인 新幹會도 조직되었던 만큼, 일률적인 형식적 분류로 논단할 수만은 없는 歷史的인 특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안목으로 그 당시의 作品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과연 무로文學의 본질에 부합되는 作品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의아를 품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시기의 理論的인 先導者는 朴英熙, 金八峰 등이나 이들은 1930年代에 들어와서 轉向하였고, 특히 朴英熙는 「얻은 것은 이데올로기요, 잃은 것은 예술이다」라는 文學史에 흔히 引用되는 警句를 남기었다.

그만큼 무로文學이나 新傾向派文學은 理論的인 주장에 비하여 그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作品은 생산되지 못하였고, 기껏 趙抱石의 「洛東江」을 예증할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5

1930年代는 日本이 滿洲를 強占하고 다시 中國에 進入하여 결국은 太平洋戰爭으로 확대되는 導火線을 만든 시기여서, 植民地에 대한 抑壓과 收奪은 더욱 가혹해졌으므로, 作品의 創作도 그에 따라 극도의 제약을 받게 되었다.

그러한 현실적인 背景은, 作家로 하여금 현실에서 외면하여, 純粹文學의 이름 아래 社會性이 去勢된 藝術性 위주의 작품활동으로 돌아가게 하거나, 또는 멀리 歷史的 素材를 택하여 거기에 作家意識을 象徵的으로 반영하거나 하게 했으며, 한편으로는 農村의 현실에 눈을 돌리는 소극적 抗拒의 방향으로 변모하게끔 만들었다.

1920年代에 등단하여 주로 30年代에 활약한 蔡萬植은 「痴叔」 「레디메이드 人生」 등의 短篇 및 「濁流」 「太平天下」 등의 長篇을 발표하였다. 그는 作品 속에서 현실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諷刺하는 수법을 주로

택하였다.

李孝石과 兪鎮午도 20年代 末期에 문단에 나와 30年代에 주로 作品을 발표한 作家다. 이들은 무로文學이나 新傾向派文學에 약간 同調의이거나 그들의 作家와 밀접하다는 면에서 世稱 同伴者作家로 불리고 있으나, 그들의 作品속에서 그러한 경향을 찾아보기는 꽤 어려울 정도로 그들의 代表作에는 그러한 색채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李孝石은 그의 대표작인 「메밀꽃 필 무렵」을 비롯하여 「豚」「柘榴」「山」「들」「개살구」「粉女」 등의 短篇을 발표했다. 그는 抒情的인 참신한 감각의 세련된 문장 표현을 하였으며, 異國情緒와 性的肉感的 묘사에 따른 에로티시즘으로 그의 문학의 특색을 나타내었다.

兪鎮午는 李孝石과 동창으로 거의 같은 시기에 문단에 나와, 「金講師와 T教授」「滄浪亭記」 등 주로 식민지하에 놓인 知性人의 고민을 그렸다.

1930年代에 나와 異色的인 작품 활동을 하다가 전후하여 夭折한 작가에 李箱과 金裕貞이 있다.

李箱은 「날개」를 비롯하여 「童骸」, 「逢別記」, 「終生記」, 「龍龜會豕」 등의 短篇을 발표하였으며, 自虐的 自意識의 세계에서 心理的 深層를 파고 든 특색있는 作品을 남겼다.

金裕貞은 「소나기」「동백꽃」「산골 나그네」「金따는 콩밭」 등의 短篇을 발표하였으며, 주로 僻地 農村의 소박한 人物을 등장시켜 土俗的인 語彙 驅使로 郷土色이 짙은 獨自의 경지를 개척하였다.

한편 1930年代의 背景的인 특색의 하나는 「브·나로드」 즉 「民衆속으로」의 旗幟 아래, 農村啓蒙運動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매마침 저널리즘의 加勞를 얻은 이 운동은, 열기를 띠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파급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現象은 作品 창작에도 영향을 미쳐, 이른바 農民文學 또는 農村小說로 불리는 많은 作品들을 낳게 하였다.

李光洙의 「흙」 沈薰의 「常綠樹」 民村의 「故郷」 등은 넓은 뜻에서 이 계열에 속하는 作品들이다.

이 경우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李無影은 農村啓蒙의 뜻과는 달리, 作

家 自身이 스스로 農村으로 뛰어 들어가, 農民들과 접촉하며 農事를 짓고 農村 生活을 하면서, 그 體驗을 素材로 하여 이른바 「흙의 文學」 또는 「歸農文學」이라고 불리우는 農民文學의 獨自의인 경지를 이룩하였다. 그의 이러한 의도는, 「흙의 奴隸」 「第一課 第一章」을 비롯한 많은 作品 속에 反映되어 農民作家로 불리우게끔 되었다.

1930年代 後半에 주로 작품활동을 한 作家로 桂鎔默, 金東里, 鄭飛石 등을 들 수 있다.

桂鎔默은 「白痴 아다다」 「屏風에 그린 닭이」 등 不具나 異色的인 人物을 등장시켜 현실을 암시적으로 풍자하는 작품을 발표하였다.

金東里는 「花郎의 後裔」 「바위」 「巫女圖」 「驛馬」 등의 短篇을 발표하였으며, 그는 주로 샤머니즘을 비롯한 土俗的 또는 宗教的인 素材를 다루어, 그 속에 幽默니즘을 浮刻시키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하여왔다. 8·15 후의 그의 주요한 作品으로는 短篇에 「興南撤收」 「等身佛」 長篇에 「사반의 十字架」 등이 있다.

鄭飛石은 「卒哭祭」 「城隍堂」 「諸神祭」 등 短篇을 발표하였으며, 그의 作品은 自然의 순수성에 결합된 人間의 本能을 그린 것이 두드러져, 후일에는 愛情問題를 다룬 新聞 連載小說을 주로 썼다.

6

1940年을 전후한 시기는 우리 文學이 어쩔 수 없는 궁지에 몰린 가장 불우한 受難期였다.

우리 國語인 「朝鮮語」 시간이 中學校 教科課程에서 제거된 뒤를 이어, 다시 國民學校에서도 사라지고, 日本語 專用으로 교육하려는 朝鮮語 抹殺政策이 강행되게 되었다. 이러한 日帝의 시책은 결국 朝鮮日報, 東亞日報 등 民族紙를 1940年 8月 10日字를 끝으로 강제 廢刊시켰고, 계속하여 純文藝誌인 「文章」 및 「人文評論」 마저도 자진 폐간할 수 밖에 없게끔 만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말로 된 많은 書冊의 발행 내지 판매 금지 조치를 단

행하였고, 급기야는 우리말 辭典을 편찬중에 있던 「朝鮮語學會」學者들을 체포 投獄하는 斷末魔的인 사태를 빚기까지 했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말로 된 文學作品은 發表誌를 거의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作家에 대한 제약과 압박도 날로 심하여져, 붓을 꺾고 자취를 감춘 文人이 많았고, 徵用으로 끌려 가거나 拘禁狀態에 놓인 문인도 적지 않았으므로, 文學作品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文學史에서 日帝 末葉의 이 시기를 소위 暗照期라는 이름으로 다루는 所以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상 개화기부터 8·15 해방까지의 소설의 向方에 대하여 개관하였거니와, 이 半世紀의 時代的 背景이 植民地 治下였던만큼, 民族의 啓蒙과 日帝에 대한 抵抗精神이 文學의 主軸을 이루었고, 거기에 다시 多樣한 思潮의 傾向이 隨伴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小說의 樣式面에서 볼 때, 長篇小說보다 短篇小說이 優位에 놓인다는 點이다. 그것은 이 시기의 대부분의 長篇小說이 新聞에 連載 發表된 新聞小說이라는 특수 조건의 제약에도 연유되는 것이지만, 우리 장편소설이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못한 성장과정에 있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7

8·15 해방에 의한 國權 회복은 우리 역사에 일대 轉機를 가져왔지만, 國土의 分斷에 의한 思想의 對立과 民族의 分裂은 새로운 비극을 釀成하여, 끝내 6·25의 慘變을 招來케 하였고, 그러한 民族의 悲劇의 素因은 아직껏 전혀 해소되지 않고 硬化되지만 하여, 祖國統一의 念願이 달성되기는 遼遠한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는 비관적인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착잡한 背景의인 여건 속에서도, 自國語를 자유롭게 驅使할 수 있는 8·15 후의 문학은, 현실적 상황과의 상관관계에 따르는 사상적 표현의 불가피한 제약 속에서나마, 各 作家들의 다각적인 모색과 의욕적인 시도로

많은 問題作이 창작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解放前에 등단한 作家들도 계속 作品 活動을 하고 있거니와, 새로운 유능하고 개성적인 作家들이 다수 輩出되어, 그 창작적 업적은 8·15 전을 능가하는 文學的 豐饒를 보이고 있다.

이들 作家와 作品에 대한 검토는 稿를 달리하여 논할까 한다.